



사사, 기록으로 정리되는 기업의 무형자산

며칠 전, 라디오에서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다. 3년간의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다. 벤처정신에 충실하되 이윤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였다. “미국의 경우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회 자산화하는 데 익숙해 있다”고 전제한 그는 “귀중한 경험이 사회발전에 쓰이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서 언급한 경험이란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의식, 각 계층의 견해와 기록들, 그 해결방안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경험은 결국 기록에 의해 정리된다. 기업 내 기록이란 공식적인 문서와 그 외에 각종 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CEO칼럼, 전 직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물론 개인 메모와 일기까지도 포함된다.

소중한 가치 지닌 기업 경험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발전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고 선두에 서기 위한 힘든 경영환경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조직이 핵심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기업의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에는 자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실이다. 한 기업이 문을 닫으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은 그 기업이 축적해왔던 경영과 기술 등 다양한 무형의 자산도 함께 소멸되고 만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벤처기업이 창립에서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에서 취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렇지만 대다수 벤처의 역사는 CEO와 몇몇 창업 동료의 머리와 개인자료로 보관되었다가 사장되는 일이 허다하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기업, 그리고 창업정신과 기업이 정신의 산출물이 소멸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사편찬으로 새 지식 창출 가능

조직 속의 한 개인으로 머물 때는 기억에 불과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모아 정리한다면 우리 산업사의 일부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벤처기업이 조직의 경험과 발자취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기업의 생존과 발전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의 미래가 없다면 그 일원인 개인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는 기업의 미래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현재를 통해 미래의 꿈은 성취되는 것이다. 장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 나름의 성장비결을 지니고 있다.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특정산업이나 경기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경영을 지속시켜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장수하는 기업이 곧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은 기업 생존, 다시 말해 지속경영에 끊임없이 도전 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 역사가 깊다는 이유만으로 우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 명맥을 이어나가지만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기업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탁월한 경영성과는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는 기업이야말로 오늘날 기업의 최고 덕목 중 하나이며 이는 결코 회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임직원의 자부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의 정신, 기업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사사 혹은 기업사이다. 귀중한 경험이 축적된 사사 발간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도구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은 물론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에게 자부심과 함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한다.

사사는 기업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리더의 경영철학, 기업 고유의 문화 등 한 기업의 무형자산이 오히려 담긴다. 따라서 기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사사를 편찬하는 일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시대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좋은 기회이다.

글 _ 이종남 / (주)사사연 대표